

### 강의 3: 주기도문 (3) - 마태복음 6:9-13 중심으로

- 1) 하나님을 부름(9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 2)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한 세가지 간구(9-10절)
- 3) 우리의 필요를 위한 세가지 간구(11-13절)

교회(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고, 다양한 상황/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세워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다스림(나라)이 시작되어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때 기도자는 그 일에 동참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담아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필요를 위해 기도할 차례입니다.

#### 1.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11절; 잠 30:8)

1)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헬, **에피우시오스**, 오늘의/내일의/지속적인/초자연적인)”

2) “양식(헬, **아르톤**, 빵)을 주시옵고”

#### 2.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12절)

1)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헬, **오페일레마타**, 빛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 새번역 주기도문: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2)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 3.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13절)

1)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약 1:13-14; 창 22:1; 신 8:2)

\* 새번역 주기도문: “우리를 시험(헬, **페이라스모스**, 시험/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2) “(헬, **알라**, 다만/그럼에도) 악에서 구하소서”

#### \* 참조: 괄호 안의 구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13절; 성경의 관주 4번 참조)

---

#### <나눔 질문>

1. 11절에서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후, 마 6:31에선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11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2. 12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죄사함은 우리의 용서 실천이 선행될 때 받을 수 있는 은혜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죄사함이 조건적인 용서인가요? 무조건적 용서라면 우리는 12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3. 주기도문은 ‘우리’의 기도이자 ‘우리’를 위한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양식을 위해, ‘우리’ 죄를 위해, ‘우리’에게 닥칠 시험을 위해 기도합니다. 행여나, 내 삶은 여유롭고, 나는 나만의 정결한 삶을 유지하며, 이제 시험을 이겨낼만큼 강해도, ‘우리’ 중에 누군가는 여전히 양식, 죄, 시험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으므로 주기도문은 우리가 매일 간절히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주로 언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십니까?